

지혜는 스스로 구하는 것이지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수리아의 검-V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 (6)

남자는 계속해서 무니 쪽을 훑어져라 바라봤다. 무니는 그 시선을 피해 뒷걸음질 치다 그만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저 사람, 지금 나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무니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노인을 향해 말했다. 시선은 여전히 남자를 향한 채였다. 무니의 질문에 노인이 깔깔 웃으며 대답했다.

“이곳은 기억 속이잖아? 왜 꼭될 수는 있지만, 절대 바뀌지는 않아. 너는 그저 그 기억 속 장면을 바라보는 존재일 뿐, 저 자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단다. 보일 수도 없고, 보여서도 안 되지.”

“그럼 뭘 저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건데?” 땅바닥에서 일어난 무니는 엉덩이를 툭툭 털어내며 물었다.

“글쎄다. 무엇일까?” 노인은 남자의 시선이 향한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니의 눈도 노인을 따라 움직였다.

“하늘, 구름 그리고 태양이네.” 무니는 구름에 가려졌던 태양이 눈부신 모습을 드러내자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노인은 아무 말이 없었다.

“지금 저 사람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무니는 다시 뒤돌아보았다. 남자는 이미 등을 돌린 다음이었다. 바위 위에 걸터앉아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모양새였다. 무니는 노인을 훑듯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남자를 향해 살금살금 걸어갔다.

“뭘 하고 있는 거지?” 뒤통수만으로도 남자가 무척 집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노인의 말처럼, 무니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열심히 뭔가를 쓰기만 하고 있었다. 점차 가까워질수록, 그의 앙상한 어깨 뼈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다. 처음 볼 때부터 느꼈던 것이지만, 남자의 몸은 지나치게 마른 편이었다. 게다가 아무렇게나 잘라버린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자라 산발인 상태였다. 남자의 곁에 선 무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옆에 조심스럽게 걸터앉았다. 그때 노인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왔다.

“저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뭘 줄 아니?” 깜짝 놀라 바위 위에서 떨어질 뻔한 무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뭘! 놀랐잖아.” 노인은 어느새 그의 바로 옆에 와 있었다. “쓰고 있는 게 뭐데?” “내가 예전에 봤던 책이란다. 내가 등장했던 바로 그 책 말이야.”

노인의 말에 무니는 남자가 쓰고 있던 책을 들어 다봤다. 가는 붓으로 정성들여 한 자, 한 자 쓰고 있는 단어들은 모두 고대어였다. 분명 그때 난다가 읽



삽화 · 김홍인

었던 책도 고대어로 쓰인 것이었다.

“네 눈엔 이 자가 어떻게 보이느냐? 지혜를 얻은 것 같니?”

무니는 글을 쓰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저었다.

“이게 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인 거야?”

“그래. 유감스럽게도 그렇단다. 책을 완성하자마자, 오랜 피로와 굶주림으로 죽어 버리고 말았지. 이제 마지막 날도 몇 시간 남지 않았구나.”

“왜 이렇게 된 거지, 이 사람은? 그토록 얻고 싶다고 했던 지혜도 얻지 못하고 굶어 죽고 말다니. 온 일생을 통틀어 남긴 게 고작 책 한 권뿐이라는 소리잖아. 도대체 왜지?”

“방금 내가 그 답을 말하지 않았니?”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책 한 권을 남겼다는 말?”

무니는 고개를 가웃했다. 노인은 그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평소라면 벌떡 화를 냈을 법한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무니는 고분고분 그 손길을 받아들였다.

“아니, 그토록 가지고 싶은 지혜를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서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말이다.”

무니는 이제까지 미소 말고는 별 다른 감정을 내보이지 않던 노인의 눈빛에 안타까움이 비치는 걸

보았다.

“저 자와 내가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날, 그는 최초로 최후의 질문을 던졌고, 평생 내가 건네준 답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살았던 게야. 분명 그를 향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었음에도 그랬지. 다른 모든 말들은 진실로 받아들였으면서도, 지혜는 스스로 구하는 것이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새겨들지 않았어. 안타깝게도 말이야.”

무니는 남자의 초라한 어깨를 바라보았다. 노인의 말처럼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엄청난. 평생을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잖아. 나 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봐 주고 싶어. 가능할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그들은 남자의 맞은 편 바위 위에 걸터앉아 조용히 그가 책을 완성하기를 기다렸다. 기억 속 이긴 했지만 시간을 건너뛰지 않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던 것이다. 시간은 딱 그 만큼의 속도로 흘러갔다. 저 멀리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어둠은 숲속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무니는 이렇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했다.

이윽고 남자가 책을 덮었다. 무니는 자신도 모

르게 주먹을 꼭 쥐었다. ‘이제 곧 저 사람은 죽는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된 이후로, 무니는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죽음을 외면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지내왔다. 죽음은 슬픔과 곧바로 연결되는 사건이었고, 그 슬픔의 무게가 무니의 마음을 아직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죽음을 목격한다는 사실에 긴장이 되긴 했지만, 슬프지는 않았던 것이다. 물론 그가 지금 처음 보게 된 사람이어서는 아니었다.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일까? 무니는 꼭 쥔 주먹에서 힘을 느꼈다. 책을 덮은 남자는 여전히 바위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미 죽었다.”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깜짝 놀란 무니는 바위에서 내려와 남자를 향해 뛰어갔다. 그는 정말 눈을 감은 채 약간의 미동도 없이 앉아있었다. 그때 아직 남은 빛을 끄고, 어둠을 불러오는 바람이 약하게 불어왔다. 남자의 몸은 그 바람의 힘에 밀려 그대로 바위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 사람 정말 죽었어.”

무니는 간신히 입을 열고 말했다. “그런데 미소를 짓고 있어.”

무니는 역시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을 향해 말했다.

“어째서 미소를 지은 채 죽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을 맞았는데 말이야. 책을 완성했기 때문이야?”

무니는 죽은 남자의 옆에 놓인 책을 집어 들었다. “이 지경이 되면서까지 책을 쓴 이유가 뭐야?”

“알고 있었던 게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이야. 이 자는 지혜를 얻기 위해 정말 많은 일들을 했단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온갖 책을 구하고, 이렇게 숲속에 홀로 지내는 고행을 자처했지. 책 속에는 지혜로 향하는 길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 수많은 책을 다 읽고 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어떤 책에도 질문만 있을 뿐, 답은 없다는 것을 말이야. 결국 스스로 깨달은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 선택을 해야 했어. 남은 생을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살아가느냐, 자신의 살았던 흔적이라도 남겨두느냐. 그리고 이렇게 책을 남긴 거란다. 그러나 결국 이 자가 후에 사람들에게 남겨두고 싶었던 것도 질문일게다. 자신이 답을 구하지 못한 바로 그 질문이겠지.”

노인의 말을 들은 듯했지만, 무니는 여전히 남자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아무튼 어쨌든 사람들은 이 자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이 세상의 시작과 끝, 그 영원한 순환에 대해서 기록한 최초의 인간이니까 말이야.”

노인은 다시 무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무니는 남자가 쓴 책을 펼쳤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상해. 이 글자들, 모두 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무니가 나지막하게 탄성을 지르며 말했다. 분명 자신이 잘 읽지 못하는 고대어였다. 무니는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이 당신의 기억 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노인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어보였다. 고개를 가웃하던 무니는 맨 첫 장을 펼쳐 소리 내 읽기 시작했다.

“한 세계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신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학자들의 경우는 심지어 신들이 인간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약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틀린 이야기라고만 할 수 없다. 남과 북, 동과 서, 각각에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을 만드는 지역과 풍토에 따라 다른 이름이 부여되었을 뿐 실제로 각각의 이름에 해당하는 신들이 모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만큼 인간에 의해 어떤 이름으로 불려 지느냐, 하는 것이 신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신들의 이름, 형태, 그들의 역할에서부터 인간과의 관계까지, 비록 지역에 따라 이름과 형태의 변화가 조금씩 있다고 하더라도 ‘저 세계’의 것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후의 바람, 사트바 카르만이 어디로 어떻게 불어 흘러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까닭이다.” 우와, 여기에도 사트바 카르만이란 말이 나오잖아!”

경주 금선사 여래선원 달마동 특별 분양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습니다.

경주 조계종 금선사는 비구니스님의 수행정진 공간으로 금선선원(30세대), 여래선원 문수동(24세대), 보현동(22세대)을 완공 입주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회향하는 마음으로 2012년 3월 완공예정을 앞두고 달마동(33세대)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도심산중으로 전국 교통망이 편리하고 주변엔 흥송이 둘러싸여 있어 산세가 수려한 경관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정진 공간으로는 최적지로 여겨지고 있어, 이곳에서 평생 함께하실 비구니스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4(임야번지 산 193-1)
- | 세대수 33세대 : 평형(10,12,13,21,23평)
- | 건물화주 지불방법(평형에 따라 다름) : 총액,계약금,중도금,잔금 원
- | 시설 : 태양열난방 완비
- | 입주자격 : 조계종 비구니스님으로써 승가에 결격사유가 없이 심신이 건강한 승려, (승려증 복사, 주민등록등본 1통)는 제출 바랍니다.
- | 완공예정일 : 2012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주지 휴정 합장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전화 : 054)772-7171 ■ 휴대폰 : 010-3538-387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사관(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웅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징 : 눈을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약 250cm),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제(평가격 : 30만원)
- 전사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등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함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웅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사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함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평형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